

“언론이 건강한 여론형성을 위한 의제설정을 통해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포털에 노출되는 뉴스 제휴 정책을 개선하고자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형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이 평가위원회는 금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심재철 고려대 교수는 이 위원회가 21세기형 디지털 허친슨 위원회와 같은 자율적 심의기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언론학회 회장으로서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그를 새해 첫 번째 인터뷰어로 선정했다.



Q.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나 미디어의 영향력 등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A.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주로 뉴스를 접하고 소비하는 매체가 잡지에서 신문, 신문에서 방송으로 바뀌었다가 방송이 인터넷으로, 지금은 포털 중심으로 언론의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하나의 매체가 자리를 잡으려면, 도입기 10년, 성숙기 10년, 정착기 10년 등 3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포털이 도입된 지 20년이 채 안됐으므로 포털은 아직도 성장기에 있습니다. 최근 대다수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올드 미디어의 영향력이나 역할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뉴스이용자는 여전히 기존 매체를 더 신뢰합니다. 다

만, 뉴스를 확산하고 전파하는 행위가 주로 포털을 통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어렵습니다. 포털이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래도 기존 매체를 대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올드 미디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배경과 평가위원회의 향후 역할에 대해 어떤 바람이 있으신가요?

A. 매체 수가 점차 늘어나고,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의 영향력도 비례해 커졌습니다. 언론들이 포털과의 뉴스제휴를 통해 기사 노출을 늘리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정적인 기사를 먼저 전송하며, 동일한 기사를 반복해서 노출시키는 기사 어뷰징의 문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포털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포털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설명력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공개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구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처음 준비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를 포함해 7개 단체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8개 단체가 추가돼 현재는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 모두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도 옐로우 저널리즘이 팽배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았구요. 그래도 언론 없이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됐고, 당시 시카고대학 총장인 로버트 허친슨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허친슨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는데요. 지금의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처럼 포털을 자율심의하려는 노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니 디지털 생태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새로운 언론의 문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포털뉴스 매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21세기 한국형 디지털 허친슨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Q. 최근처럼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새로운 뉴스가치는 무엇인가요?

A.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TUFF’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언론보도는 진실해야 하고 Truthful, 편견이 없어야 하고 Unbiased, 충분히 Full, 공정하게 Fair 보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뉴스의 설명력이 높아지게 되며,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사회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언론은 외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잘살아보자고 경제부흥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으며, 사회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각 세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오늘날의

언론은 특정방향의 프레임으로 사회를 이끌어어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부스터리즘에 근거한 리더십보다는 사회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나타난 결과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이를 공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객관화시킴으로써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톱 다운식 정보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민주사회에서는 국민여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합니다. 올드 미디어이건 뉴미디어이건, 언론은 팩트^{fact}에 기반한 설명력 높은 보도를 통해 사회 제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 제 세력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Q. 지난해 10월까지 제41대 언론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학회를 이끄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A. 한국언론학회는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와 교육, 학문적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지난 1959년에 설립됐습니다. 저는 제41대 언론학회장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학회장으로서 중점을 둔 부분은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한국적 공공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재정립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남북한 화해와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부터 국가 간, 인종 간, 집단 간, 세대 간에 일어나는 소통 단절과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제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털 뉴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학회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포항공대에서 <응답하라 언론학-한국사회의 위기와 공공 커뮤니케이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충남대에서 열린 가을철 학술대회에서도 <응답하라 언론학-초연결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회원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두 번 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연 것은 저희 집행부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학회의 사무실을 광화문 프레스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저희 언론학자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Q. 현재 고려대 언론대학원장과 미디어학부장을 겸하고 계신데 교수님의 교육철학과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A. 저는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 '여성 인력의 전문화'를 교육의 핵심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현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세기에는 여성 인력의 전문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가 고속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남성이 큰 기여를 했고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성장하면서 언론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우수한 여성 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며 터프한 남성 문화 위주의 사회에서 생길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여성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바꿀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 인력이 언론을 포함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Q. 언론이 언론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떠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지요?

A. 언론이 중요한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데도 보도하지 않는 것은 통계적 판단으로 보면 '일종오류'에 해당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실인데도 크게 보도하는 것은 '이종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보도할 때 처음에 언론은 메르스 환자 발생 기사를 1단 혹은 2단으로만 보도했을 뿐, 첫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야 메르스 사태를 중요한 이슈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건이나 처음 언론보도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늦은 감도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한 사회위기 관리가 안됐다고나 할까요. 언론은 메르스 사태를 보도하면서 처음에는 위험한 질병을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일종오류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질병이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이종오류에 대해서도 균형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언론의 판단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종종 틀리고요. 그래서 언론의 수준을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언론인은 중요한 뉴스를 추적해서 보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늘 일종오류와 이종오류를 분류해냄으로써 판단의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는 기사를 '기레기'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기자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 관련 기사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30%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는 60%~75%가 부정적인 뉴스로 차 있습니다. 물론 나쁜 뉴스가 편집국에선 좋은 뉴스라고 하지만 우리 언론이 지나치게 부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람직하게 보도해야 하는 사안에는 건강한 여론형성을 위한 의제설정을 통해서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Q. 올해로 위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합니다. 위원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개인적으로 신청인이 되어 조정심리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중재위원들의 구성이 법관, 전직언론인, 학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개발한, 개발도상국에도 모범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느꼈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점도 좋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처럼 국민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언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